

비밀상자

김인자 글 · 김보라 그림



주제	함께 이야기 나누기로 두려움 극복하기
권장 차시	5차시
대상 학년	5~6학년
관련 주제어	관계, 소통, 감정, 즉흥극
교육 과정 연계	국어 [6국01-07]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6국05-04] 일상생활의 경험을 이야기나 극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6국05-06]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작성	창원 제황초등학교 조미라 선생님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어린 시절의 보물, 비밀상자. 이 책의 주인공인 연이의 비밀상자에는 할머니를 위한 새 고무신 한 켤레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뜻 드리지는 못하지요. 혹시 그 신을 신고 할머니가 멀리 어디론가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 이랍니다.

이미 엄마와 아빠를 떠나 보낸 연이에게 ‘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은 매 순간 피할 수 없는 감정이 되었습니다. 새 신을 선물하면 할머니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연이가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비밀상자를 드러내고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오버랩 되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이는 환한 미소를 머금게 되지요. 연이의 사랑스러운 이 미소는 더 이상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불안감 따위로 힘들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해 줍니다.

뛰어난 색감의 그림에 바느질로 마무리를 하며 화단에서 개성 있는 작품세계를 펼쳐가고 있는 김보라 작가의 그림은 기존 그림책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예술적 표현으로 스폰지 같은 흡수성을 지닌 독자들의 감각에 독특한 자극을 줄 것입니다.

■ 학습 목표

- 인물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림책을 감상할 수 있다.
- 상황에 맞는 말, 표정, 몸짓으로 즉흥극을 할 수 있다.
-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나누며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 수업 준비

『비밀상자』는 연이와 연이네 할머니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연이는 할머니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비밀상자가 있다. 할머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연이지만 신발을 선물해 주면 도망간다는 말을 듣고 할머니가 멀리 갈까 걱정되어 새 고무신을 전하지 못한다. 이미 엄마와 아빠를 떠나보낸 연이에게 ‘이별’에 대한 두려움은 너무 커서 연이를 자꾸 작아지게 만든다.

누구나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다. 그 크기가 작을 수도 연이처럼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 두려움이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두려움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수업을 준비해 보았다. 연이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연이가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운 경험을 나누고 즉흥극을 하면서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친구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게 한다. 이런 경험이 쌓여 아이들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

수업 준비물

그림책, 붙임 종이, 색종이

■ 학습 과정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표지와 제목 보며 내용 예상하기	2차시
읽는 중	그림책 읽기 그림책 내용 파악하기 인물 성격 파악하기	
	주변 사람 소개하기	
읽은 후	나와 연결 짓기	1차시
	즉흥극 하기	1차시
	두려움 극복하기	1차시

읽기 전

1. 표지와 제목 보며 내용 예상하기

■ 책 소개하며 표지 살펴보기

- 오늘 함께 읽을 책을 함께 살펴봅시다.
- 책 제목은 무엇인가요?
예: 『비밀상자』 이에요.
- 표지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예: 초록색 바탕에 가느다란 선이 동그라미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요.
빨간 선이 있어요. 중간에 지그재그 모양도 있어요.

빨간 새가 있어요.

비밀상자 글자가 상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글로벌 출판사에서 만들었어요. CD 수록이라고 쓰여 있어요.

-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야기를 예상해 봅시다.

예: 비밀상자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푸른 바다에서 노란색 비밀상자를 발견했어요.

비밀상자를 누가 만들어서 나누어 줄 것 같아요.

■ 면지 살펴보기

- 면지를 살펴봅시다. 무엇이 보이나요?

예: 노란 바탕에 파랑 나무가 있어요. 나무 위에 새가 앉아 있어요.

비밀상자가 보여요. 새가 비밀상자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표지에 있었던 가느다란 선들이 있어요. 선 위에 점이 찍혀 있어요.

읽는 중

1. 보고 듣고 읽으며 그림책 감상하기

■ 음악과 함께 듣는 『비밀상자』 듣기

- 김현 작곡가의 서정적인 음악과 함께 그림책을 감상해봅시다.

Tip. 『비밀상자』 수록 CD에는 3개의 트랙이 있다. 첫 번째 트랙은 음악과 함께 그림책을 직접 읽어주므로 아이들이 그림에 집중하여 그림책을 감상하기 좋다. 교사가 직접 그림책을 읽어주고자 한다면 3번 트랙을 재생하여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면 좋다.

2. 그림책 내용 파악하기

■ 그림책 함께 읽으며 내용 확인하기

- ‘해가 똥구렁에 걸렸다.’라는 무슨 뜻일까요? 짐작해 봅시다.

예: 해가 이미 떴는데 아직 자고 있다는 것 같아요.

‘해가 중천에 떴다.’와 같은 뜻인 것 같아요.

할머니 집에서 제가 늦게까지 자고 있을 때 할머니께서 ‘해가 똥구렁에 걸렸다.’라고 말했어요.

늦잠 자기 말라는 말이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 연이는 누구와 사나요?

예: 할머니랑 연이 둘이서 살아요. / 할머니와 살아요.

- 연이네 할머니는 왜 ‘물고기할머니’, ‘천둥할머니’인가요?

예: 할머니한테서 비린 바다 냄새가 나서 물고기 할머니입니다.

언제나 큰 소리로 말해서 천둥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생선을 팔아 비린 바다 냄새가 나고 시장에서 생선을 팔려고 큰 소리로 말해야 해서 물고기할머니이고 천둥할머니입니다.

- ‘고뿔들면 어쩔라고’에서 고뿔은 무슨 뜻일까요? 책을 읽다가 모르는 낱말이나 구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고뿔’은 감기라는 뜻이에요. 책 읽을 때 고뿔이라는 낱말이 나와서 엄마한테 물어보니 감기라고 하셨어요. 모르는 낱말이 나올 때 엄마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주세요.

모르는 낱말이 있을 때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난번 조사하기 숙제처럼 인터넷에서 모르는 낱말을 검색하면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앞뒤 문장을 몇 번 읽어보니 뜻이 무엇인지 대충 알 수 있었어요. 지난번 책 읽을 때 모르는 낱말이 나왔는데 사전도 없고 주위 어른이 없어서 여러 번 읽었더니 이런 뜻 같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찾아보니 제가 생각한 그 뜻이 맞았어요.

- 연이의 책상 서랍 안에 초록색 비밀 상자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 고무신이에요. / 할머니 줄 새 고무신입니다.

- 연이가 고무신을 할머니께 드리지 않고 비밀 상자에 넣어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할머니께 새 고무신을 선물하고 싶지만, 할머니께서 새 고무신을 신고 멀리 도망간다는 씨앗 할머니의 말에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연이를 두고 멀리 갈 것 같아 겁이 나서 비밀 상자에 넣어두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 그림책 속 숨은 새 찾기

- 작가님께서 연이를 위해 그림책 속에 숨겨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렸을까요?

예: 책 표지와 면지에 있던 새가 중간마다 있어요.

연이가 혼자 있는 장면에서 새가 있어요. 할머니가 안 보여서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새가 연이 쪽을 보고 있어요.

빨래 걸으러 뛰어갈 때는 노란 새가 있어요. 옥상에 앉아 있을 때도 새가 있어요. 연이를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연이에게 힘내라고 말하고 싶었나 봐요. 혼자 있는 연이가 외로워 보여서 외로워하지 말라고 새를 그렸나 봐요.

- 내가 만약 새라면 연이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연이에게 할 말을 붙임 종이에 써서 붙여봅시다. 왜 그 말을 썼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예: 나 여기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 혼자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언제나 같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연이야, 할머니는 언제나 네 편이야. - 할머니가 사라질까 걱정하는 연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언제나 너 옆에 있어. - 넌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내가 있을게.

그림책 장면에서 새가 연이에게 하고 싶은 말 쓰기		

Tip. 아이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 후 ‘연이를 위해 이렇게 해 봐요.’를 읽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게 한다.

3. 인물 성격 파악하기

■ 연이와 연이네 할머니의 성격 파악하기

- 연이와 연이네 할머니의 성격이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을 찾아봅시다. 연이와 연이네 할머니는 어떤 성격인가요?

예:

등장인물	말이나 행동	성격
연이	■ “할머니, 할머니는 누구 편이야?”	할머니에게 많이 의지한다.
	■ 연이가 깜짝 놀라 제트기보다 빠르게 슈웅 뛰어나옵니다. ■ 할머니가 안 보이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 “우리 할머니는 내 편이었어요. 나 혼자 남겨두고 아무 데도 안 가실 거라고요!”	할머니가 어디 갈까 봐 겁낸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 불안하다. 할머니가 멀리 도망갈까 봐 두려워한다.
	■ 연이가 할머니와 볼을 맞대고 할머니와 같이 웃는다.	할머니가 와서 기쁘다.
	■ 깜깜해지기 전에 빨래를 걷으려고 연이는 달려갑니다.	할머니를 도와준다. 다정다감하다.
	■ 할머니에게 고구마를 가져왔다.	할머니를 사랑한다.
	■ 비밀 상자에는 새 고무신 한 켤레가 들어 있습니다.	할머니를 아낀다.
연이의 할머니	■ 계란을 입힌 소시지부침은 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다.	연이를 좋아한다. 연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 “뭐 하러 나왔어? 고뽕들면 어쩔라고.” ■ “연이야, 뛰지 마라. 무르팍 깨진다.”	연이를 걱정한다.
	■ 오래전에 구멍이 난 고무신을 할머니는 매번 꿰매어 신습니다. ■ “꿰매면 멀쩡한데 사기는 뭘 사.”	물건을 아껴 쓴다. 알뜰살뜰하다.

4. 주변 사람 소개하기

- 주변 사람을 관찰해보고 그 특징 살려 표현하기

- 연이네 할머니는 ‘물고기할머니’, ‘천둥할머니’라고 불립니다. 이처럼 친구나 가족을 관찰하고 그 특징을 살려 표현해 봅시다.

예:

내가 표현할 사람	특징	()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
예) 연이네 할머니	비린 바다 냄새가 난다.	(물고기 할머니)입니다.	물고기에서 나는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예) 엄마	집에 있을 때랑 밖에 나갈 때가 다르다.	(변신 엄마) 입니다.	집에서는 안경 쓰고 머리도 묶고 있는데 나갈 때는 예쁘게 하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읽은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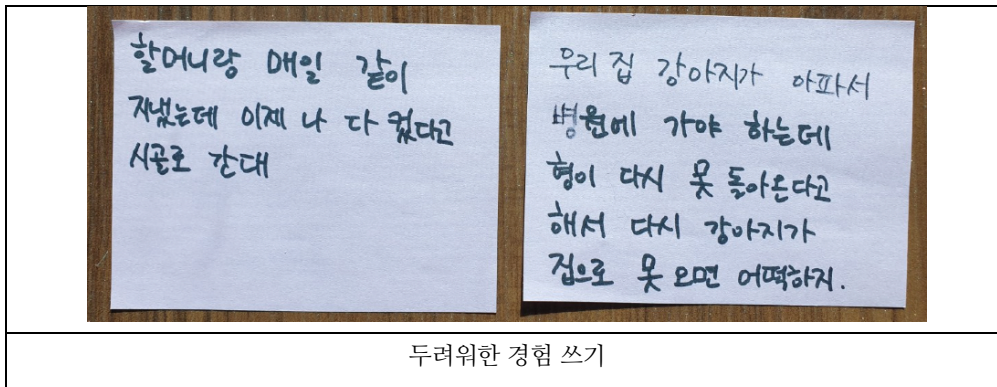
1. 나와 연결 짓기

■ 비슷한 경험 이야기 나누기

- 연이처럼 누군가 사라질까 두려워한 적이 있나요? 사람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무엇인가가 사라질까 두려워한 경험을 써봅시다.

예: 우리 집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형이 다시 못 돌아온다고 말해서 겁이 났어요.

우리 할머니께서 매일 같이 지냈는데 이제 나 다 컸다고 시골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두려웠어요.



- 그때 기분은 어떤가요?

예: 슬펐어요. / 무서웠어요.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Tip. 두려움 극복하기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럴 때 아이들에게 공유 가능한 부분까지만 쓰면 된다고 안내하면 좋다.

2. 즉흥극 하기

■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즉흥극 하기

- 연이와 비슷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경험이나 친구의 경험 중 즉흥극으로 할 만한 장면을 떠올려 보고 즉흥극을 해봅시다.

예: 상황 - 할머니께서 시골로 간다는 상황

상황	같이 지내던 할머니께서 시골에 간다는 상황
등장인물	나(정원), 민철
장소	교실
(정원이가 힘없이 교실로 들어온다.) 민철 :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정원아, 무슨 일 있어? 너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정원 :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그제... 민철 : 너 엄마한테 혼났어? 정원 : 아니, 우리 할머니 이제 시골로 내려가신대. 민철 : 할머니 시골에 가시기도 했잖아.	

정원 : 이제 내가 다 커서 시골로 아예 가신대. 나 할머니랑 아직 같이 있고 싶은데...

민철 : 너 할머니랑 추억이 많더니 가신다고 해서 섭섭하겠다.

정원 :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민철 : ()

■ 즉흥극 소감 나누기

- 즉흥극을 한 소감이나 함께 즉흥극을 한 친구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해봅시다.

예: 연기하는 친구의 얼굴을 보니 그때 어떤 마음인지 잘 알 수 있었어요.

연기를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민철이가 해 준 조언을 듣고 힘이 났어요.

Tip. 즉흥극은 고정된 대본 없이 대략의 줄거리만 가지고 역할을 정한 뒤 약간의 연습 후 발표하는 것으로 즉흥적인 말, 표정, 몸짓을 통해 인물의 감정을 드러나게 한다. 아이들이 즉흥극을 어려워한다면 몇 가지 상황을 제시하거나 제시된 상황에서 몇몇 대사를 빼고 제시하여 빠진 대사를 생각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3. 두려움 극복하기

■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즉흥극 하기

- 친구의 두려움을 읽어보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내가 생각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답글로 써봅시다.

예:

할머니랑 매일 같이 자냈는데 이제 나 다 컸다고 시골로 갈대 할머니는 너 마음속에 언제나 있을거야. 죽말마라 할머니 불러 가면 되니 걱정마. 괜찮은거야.	우리 집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형이 다시 못 돌아온다고 해서 다시 강아지가 집으로 못 오면 어떡하지. 건강하게 돌아올거야. 다시 오면 삼채도 같이 가고 같이 시간은 많이 보내봐.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답글 쓰기	

Tip. 『비밀상자』 제목처럼 상자를 만들어 활동할 수도 있다. 간단한 종이 상자 접는 방법을 소개한 후 자신의 두려움을 쓰고 상자에 넣어 둔다. 친구의 비밀상자 중 마음에 드는 비밀상자를 골라 친구의 두려움을 읽어보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쪽지에 쓴 후 다시 비밀상자에 넣어 상자를 제자리에 두고 상자 주인인 학생이 가져가 친구의 답글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